올 수능 방향 가늠… "수시·정시·수능최저 기준 파악해야"

'2020년 대입' 올 첫 6월 모의평가

고3 46만명, 졸업생 7.8만명 응시
지원자 5만여명 줄고 재수생 증가
"영역별 학습 방법 중간점검하고 지원 대학 모집단위에 집중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의 올해 첫 모의평가가 4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3 수험생 지원자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불수능(어려운 수능)'을 겪은 졸업생 지원자가 늘어 재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지원자 약 10% 감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를 4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53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4만183명으로, 재학생은 46만2085명이고 졸업생 등은 7만8098명이다. 전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5만2191명 감소했다. 재학생은 5만4326명 감소했으나, 졸업생 등은 2135명 증가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수능 대비 시험으로 시험의 성격과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실제 수능과 동일하다.

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포함해 출제 기본 방향과 영역별 출제 방향은 시험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채점은 수능처럼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 실시되므로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 등 필기구 흔적이 남은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만 기재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성적은 이달 25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실제 수능처럼"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의 첫 시험이라는 점과 재수생 등이 참여해 실제 올해 수능 경쟁자들이 치른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수능 위주 정시 지원은 물론, 9월 지원하는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여부를 파악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우선 이번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받으면 영역별 학습방법을 중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BS연계 문제와 출제경향을 분석해 물음구조와 출제의도 등을 파악하면서 수능 문제 유형을 익혀야 한다. 틀린 문제는 해당 부분을 보완하고 기본 개념부터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정시모집 수능 반영 방식에 맞춰 반영영역이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모집단위에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들면,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두 영역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 시간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일부 최상위권 대학이나 모집단위에서는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지만, 대다수 대학은 2개나 3개 영역만 반영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원 대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유리한 점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인이 강점을 가진 요소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을 찾아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세우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다만 6월 모의평가 결과만으로 수시모집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수능까지 170여 일의 시간이 남았고 향후 학습에 따라 성적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는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학생부교과전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커넥츠 스카이에듀 유성룡 진학연구소장은 "학생부교과 성적이 6월 모의평가 성적보다 다소 높다고 해도 많은 대학들이 수능 이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평가 등으로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한다"면서 "단순히 학생부교과 성적이나 모의평가 성적만으로 지원 전형과 대학을 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단국대 경기 남동부 기업에 기업활성화 자금 지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추진본부가 경기도 광주·성남·용인시 등 경기도 남동부에 소재한 기업에 기업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단국대는 경기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을 실시, 기업들에 총 12여 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금은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 관련 사업화 지원비 등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이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교육과 포럼, 성과전시회 등을 통해 경기 남동부지역 기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외대 GTEP사업단 '태국 식품전시회'서 中企 진출 도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 지난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태국 방콕 식품전시회(Thaifax)'에 참가해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외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소속 학생들이 지난달 28일부터 6월1일까지 진행된 '태국 방콕 식품전시회'에 참가해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한국외대

전시회에서 한국외대 GTEP 사업단은 (주)화인에프티, (주)더밥, (주)태영식품, (주)문경몰과 신규 협약을 맺고 함께 참가했다.

한국외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사업단이 파견돼 각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및 시장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바이어 상담까지 진행했다.

세종대 리듬체조 김채운, '도쿄올림픽 빛낼 선수'로 주목

세종대학교 체육학과 김채운(사진)이 2020년 도쿄올림픽 리듬체조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3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채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식 리듬체조선수로 등록해 불과 1년 만에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됐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각종 국내 대회 주니어 부문을 석권해 천재성을 발휘했다.

올해로 국가대표 3년차인 김채운은 6월 제주에서 코리아컵, 7월 나폴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시작으로 벨라루시에서 열리는 민스크 월드컵과 러시아에서 열리는 카잔 월드컵 등 두 번의 월드컵 시리즈를 거쳐 2019 세계선수권에 도전한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주민·학생·예술인, 함께 즐겨요"

지역문화예술축제 '삼선유람'
캠퍼스타운사업 일환, 내일 종료

한성대학교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대에서 지역문화예술축제 '삼선유람'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한성대와 성북구가 공동 진행하는 캠퍼스타운사업의 일환이다. '문화예술로 물드는 성곽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의 사업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역사와 문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지역의 콘텐츠가 활용된 예술작품과 창업제품 등도 선을 보인다.

한성대 지역문화예술축제 삼선유람 개막행사 중 역사문화예술해설 투어에 이상한 총장(오른쪽에서 4번째)과 유승희 국회의원(오른쪽에서 3번째)이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축제는 한성대 캠퍼스와 한성대입구역 분수마루, 사랑방과 예술공방 등으로 구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369마을 앵커시설, 삼선동 성곽 등에서 대학생과 지역주민, 예술가가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축제를 주관하는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성북문화원은 대학생, 지역주민, 예술가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5일까지 축제기간 중 369마을 앵커시설에서는 삼선3구역 건축 모형과 성곽마을을 기념품 디자인 등 캠퍼스타운사업단과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의 지역연계수업 결과물과 창업지원기업의 제품이 전시된다.

이상한 총장은 "삼선유람 축제는 대학생과 지역주민,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어우러져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장"이라며 "삼선유람 축제가 앞으로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직장인 80% "여름휴가 간다"… 평균 98만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휴가 비용은 평균 98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시기는 7월 5주차가 가장 많았다.

3일 사람인이 직장인 1744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6.6%가 휴가를 떠날 것이라고 답했다.

휴가 예상 비용 평균 98만원이었으나 휴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국내로 휴가를 가는 직장인들은 평균 54만원을 예상했으나, 해외 휴가를 계획한 직장인은 경비로 192만원을 책정 3배 이상 많았다.

휴가장소는 국내(68%)가 해외(32%)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국내 여행지(복수응답)로는 바다(60.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산·계곡(30.3%), 섬(12.1%), 호캉스(호텔·10.2%), 도심지(6.9%), 문화유적지(4.5%)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edm유학센터 세계어학연수박람회 개최

edm유학센터는 어학연수 최신 정보와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dm세계어학연수박람회'를 17일까지 edm유학센터 전국지사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박람회 참가신청을 하면 맞춤 어학연수 컨설팅은 물론 국가, 도시, 기간 별 어학연수 견적을 비교해 볼 수 있고, edm유학센터 전문 컨설턴트들이 선정한 국가별 추천 학교도 확인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